죽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는 것과 같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라도 이놈의 돈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전부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하고 있죠. 참, 그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게끔,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말 못 할 일이 생기고, 말도 못 하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다 그렇지요. 혼자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 새겨야 하고, 혼자 참아야 하는 일들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야죠.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 버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고,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선, 악을 다 놓으라 하심은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선한 행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선과 악을 다 놓으라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부 차원이 달라지고 그러겠죠. 이 '악한 거, 선한 거.' 이 악한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고, 선한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나. 주는 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악한 걸 주면 나쁘다고 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악한 거는 나쁘고 선한 거는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 내가 악한 거를 받는다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너도 악한 걸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깐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넉넉하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끓고 속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화가 나면 겉으로 "야이, 이 너석아!" 이렇게 하듯, 그냥 웃고 화를 내는 그런…. 웃고 화내는 사람 못 봤죠? 하하하. 그런데 속으론 아무 걱정이 없이 그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그 잘못된 걸 잘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수도 있죠.

그러나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쑥불쑥 화내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휴, 인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업이다 뭐,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것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그냥 몰락….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텐데 "아, 여기 삼살방이 들었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 하는 거를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린 것도 넌데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 다 다 몰락 놓고만 사신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하! 야 참, 이거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서 뿌리가 깊이 박히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세워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거는 다 놓고, 놓는다기보다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표현이 어떻게 답답하니까 그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허허허.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언짢게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는 거든지 그냥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아주 철부지 애처럼 말입니다. 아주 철딱서니 없는 애처럼 말입니다.

철딱서니 없는 애가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니까 어른이 탁 잡죠.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다녀요.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지켜 주고, 이끌어 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 주고, 그냥 모두,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뭔 이름이냐.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지장보살도 돼 주고, 칠성 부처도 돼 주고 그냥 저 주해신도 돼 주고, 주산신도 돼 주고…. 모두 그냥 어떤 거 안 돼 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 줘요.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돌보지를 못하죠. 저거는 잘났다니까 잘난 대로 살게 그냥 두지요. 그냥 아무 철 없이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그 한군데만 믿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 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아만,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음이에요.

> **우리가 이것저것 다 버리고**
>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 **업이다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몰락,**
> **자기 근본 자리 한군데만 믿고 오직 몰락 그냥 다 놔 버리세요.**

지구상에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질문 지금 지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로 집단 사망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도 모두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어떠한 분야든지 불법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본다면 "스님이 그만큼 아신다면 경제 문제나 모든 일을 발란하게 하시지 왜 못 하십니까?"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이거는 모두가 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생존경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선 저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면 저기선 지배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구가 집이라면 몇 사람이나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생존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모두 성장이 되거나 낙오가 되고, 또 성쇠가 되는 까닭에 지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기를 때 그 이듬해가 되면 금방 열 마리 스무 마리가 되고 수가 없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연쇄적으로 잡아먹지 않는다면 그냥 그냥 불어나죠. 먹고 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물자도 참 빈곤해지는 결과가 될는지 모르죠. 자연법칙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은 살아날 것이고, 넓지 못하다면 죽을 것이다.' 하는 양단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저기 지나가는 놈 따귀를 한 대 때렸다면 말입니다, 맞은 놈이 그냥 푹 쓰러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덤비고 거기에서 못 이기면 내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경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굶주리고 먹고 죽고 하는 것이 개미들 살림살이나 우리들 살림살이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좀 덩치가 크다 뿐이지, 살림살이의 용도가 좀 틀리다 뿐이고. 아, 왕개미, 검은 개미, 붉은 개미가 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냥 토굴을 다 뺏고 먹을 거 다 그냥 압수하고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모두 날뛰는데, 흙에 묻혀 죽고 다리가 잘려서 죽고 병신이 되고 온통 이러는 걸 봤습니다.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선 굶어 죽는다, 또는 비가 안 와서 죽는다 이러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일리가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음을 넓게 써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고 하천세계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땅 위로 다니는 세계가 있고, 날아다니는 세계가 있고 또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자유스럽게 사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발견하시라 이거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더라도 이런 말을 한마디 들어 두신다면 언젠가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그 생각이 문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것은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질문 주인공에 맡겼는데도 어떤 일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가끔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맡겼다고 했는데 제 사량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서요. 정말 제대로 믿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이게 여러분이 아리송해서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거기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를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성품 속에서…, 그릇이 작은 데서 나왔든 큰 데서 나왔든, 잘못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잘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그만 그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땐 '아이구,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럭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죠.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앎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이 우리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즉 말하자면 잘 배우게끔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잘 생각을 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낀 것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하지를 않아요. 모를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심안으로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해라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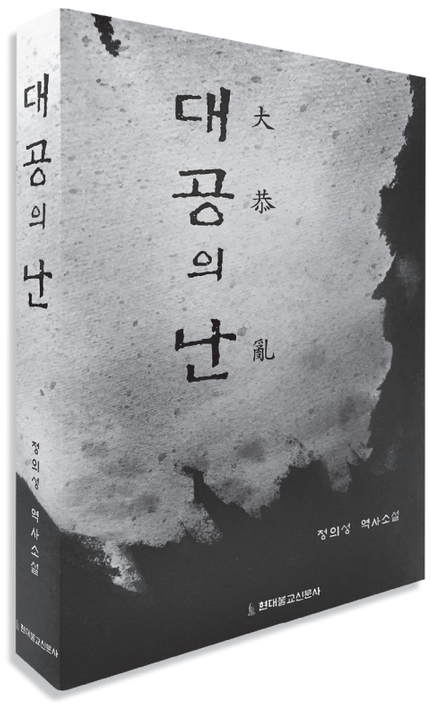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 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둘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네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